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연범

독자권익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장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총남 공주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제 1호 공약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했다. 계열 여과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행사로 분주해야 할 가게들이 텅텅 비었다.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합법계 비터고 있던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붙였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550만명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와 상환 유예제 등의 채무 조

대통령 선거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출 급감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형 방패 특별용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매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내놔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가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개별 피해 대책마련과 전반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전문은행 설립은 공통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증자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각각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공통 대응방안이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리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

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단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공약이 많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이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최근 1년새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창업한 중장년층들이 빚의 늪에 빠져 시달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장사가 잘되면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만 내수 부진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영업의 불황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문제 탓도 있다. 과포화상태에서 경쟁력 약화로 폐업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곧 출몰될 21대 대통령선거는 내수를 진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빚 갚을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나려면 내수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공약이라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엉터리 정책 말고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주으면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장태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부
익산안전체험교육관장



안전체험교육, 정년을 보장하는 생명의 공부

문제는 바로 전통적인 안전교육의 한계다.

강당에서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는 교육은 '이수'라는 기록으로 남지만 인간의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다. 규정은 머리에 남아있더라도, 몸은 위급한 순간에 익숙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에드가 데일의 '학습의 원추' 이론이 이를 명쾌히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읽은 내용의 10%, 들은 내용의 20%만 2주 뒤 기억하는 반면, 직접 행동하며 경험한 것은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안전 행동이 머리에서 손과 발로 이식되려면 '아, 위험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떨어져 봤다'라는 생생한 감각이 필요하다.

즉, 체험형 학습만이 작업자의 근육 기억에 안전을 각인한다. 강의자료나 동영상 학습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익산, 여수, 제천, 담양 안전체험교육장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특히, 익산안전체험교육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50가지의 체험은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생명의 공부다.

철골 작업 중 실제 떨어져 몸으로 느끼게 하는 떨어짐 VR 체험, 비계 위 작업 발판에서 작업하는 중에 안전난간

이 넘어가는 체험, 실제 가동되는 톨러기, 컨베이어, V 벨트에서 끼임을 체험하는 체험과 더불어 지게차 급진회로 인한 전도,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하거나 인체 감전 등과 같은 전기안전까지 체험해 볼 수 있다.

4D 기술로 구현한 프레스, 컨베이어, 지게차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사례까지 체험교육 참여자는 위험을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당해본 듯 생생한 감각으로 체득한다.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할 때이다.

안전은 '내일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행동'인 것이다. 작업복을 입은 모두가 목숨을 담보로 일터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 출발점은 몸으로 먼저 위험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위험을 미리 겪어 보고, 같은 위험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교실'이다. 기업과 기관, 나아가 사회 전체가 이 '교실'로 발견을 옮길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일터'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체험형 안전교육은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훈련에는 돈이 들지만, 사고에는 목숨이 든다.

손의계산서를 넘겨보면 사고를 한 건만 줄어도 투자비의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 더 본질적인 가치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가족에게 돌아가는 '생명의 지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Introductory text for the '취재수첩' section, mentio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economy and the need for self-help for small businesses.

취재수첩

무너지는 자영업 해법은

송대웅
경제부 차장



흔히 한 국가의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한다.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이루는 요소 역시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중 '자영업자'를 빼 놓을 수 없다.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죽을 동 살동 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인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한다.

감염병 확산 당시 매출로 살아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도 매출은 바닥이다. 이미 받았던 대출금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많은 수자들이 자영업자들의 피폐해진 삶을 방증한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달 기준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가 1년 전 (15만5000명→14만3000명)과 비교해 1만2000명(-7.8%) 줄었다.

전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29만8000명이었던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 4월 29만7000명으로 1000명 줄었다.

또 하나는 한 해금융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총대출 연체율(0.37%), 중소기업 연체율(0.47%)과 견주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12%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지표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부실이 만약 한꺼번에 터진다면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데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들이 하나 둘 폐업하는 순간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OPINION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사설

민주당 '우리동네 공약' 반드시 이행되길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우리동네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동네 공약은 민주당 지역협의회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건의를 받아 내놓은 '수요 맞춤형' 약속을 말한다. 보통 지자체별로 주민들이 체결할 수 있는 5~7개 정도의 공약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시·군·구별 민생 직결 생활 밀착형 공약인 것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후보가 처음 도입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대선때 확정된 광주 자치구 동네공약은 동구 5개, 서구 6개, 남구 7개, 북구 7개, 광산구 7개 등 총 32개다.

자치구별 대표 공약은 동구 '문화예술 자유의 정원(H-파크)', 서구 '마북동 탄약고 부지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남구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북구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 경제문화복합허브 조성' 등이 있다.

전남 우리동네 공약도 사정은 광주와 비슷하다. 22개 시·군이 건의한 공약 중 시군별로 5~6개 사업이 들어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한 동북아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해남의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지원, 장성의 고려시멘트 폐광 활용 관광테마파크 조성 지원, 장흥의 노벨 문학관 건립 지원이 포함됐다.

또 진도의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 함평의 마래모빌리티 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완도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지원, 영암의 외국인 행복 도시 조성 지원도 반영됐다.

영광의 국가 차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과 무안의 AI첨단농업융합지구 조성, 목포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 담양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광주·전남에서만 130여개가 넘는 등 전국 기초단체 (1곳 당 5개)로 확대할 경우 1000여개나 돼 지자체 등이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헛된 약속인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관심이 반영된 광주·전남 동네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금호타이어 화재' 선한 영향력 빛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이 20일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이번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 화재가 발생한 지 76시간 39분(사흘 4시간 39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공장 인근의 한 식당이 보인 훈훈한 감동이 화제다. 화재 당일인 지난 17일 식당 출입구에 '화재 진압 힘쓰시는 소방·경찰관 식사 무상제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인 채 무료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이날 100여명의 소방·경찰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허기를 달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날인 18일은 매주 휴업하는 일요일이어서 쉬어갔지만, 19일 또 다시 문을 열고 소방관 등에게 식사를 무료 제공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이번 화재로 매출 피해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불구, 식당 주인은 공장 관계자들의 단골 밥집으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도 꾸준히 기부를 이어 온 이 식당 주인 부부의 이같은 선행은 주민이 동네 커뮤니티 플랫폼에 올려 알려졌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민들도 심심일만 힘을 모아 이재명과 현장 대응 인력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고려인마을은 전통 음식인 고려인빵을, 지역 의약품 유통업체는 건강 기능식품을, 인근 식자재 마트는 생수를 지원했다.

광주 북구는 관내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마스크 2800개, 소방 관용 수분 보충제 240개, 커피라면 700개 및 각종 간식류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지원했다고 한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아예 화재 첫날부터 현장으로 달려가 힘을 보탤다. 180여명에 이르는 봉사단은 연기·악취 등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 인근에 텐트를 설치, 소방대원들의 식사를 준비·전달하고, 환경 정화를 돕는 등 연일 구슬땀을 흘린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대형 화재현장에서 빛나고 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